아시아리뷰 제10권 제2호(통권 20호), 2020: 165~194 https://doi.org/10.24987/SNUACAR.2020.12.10.2.165

쌍쓰끄리땀과 암벧까르(Ambedkar)의 소환 그리고 고대사 재구성과 인도 현대 정치의 규정요소로서의 언어*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언어에 따른 주 경계의 설정은 독립 이후 담보된 국가의 형성과 달리, 국민(nation)의 형성은 과제로 남은 채 전개된 인도 현대사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의 제도적인 틀을 규정함과 동시에,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매개체이자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언어의 문제가 인도의 현대 정치를 규정하는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최근 일부 주의 신설과 맞물려 연관된 문제가 부상되었고, 국가 단위의 통합적 정체성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힌두 국수주의 진영은 인도아리안 문화의 담지체였던 쌍쓰끄리땀을 재소환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힌두 전통사회의 가장 큰 악습으로 간주되는, 천민의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했던 암벧까르(Ambedkar)가 허구적인 상징의 영역에서 실제 맥락과는 정반대로 재포장되어 소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왜곡과 신화의 창조가 이루어진 맥락과 내용을 밝혀내고, 문화사 및 근현대 정치사의 맥락에서 단일한 국민국가의 형성을 위한 정치적 상징조작의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주 경계 설정, 인도의 언어정책, 암벧까르, 쌍쓰끄리땀

I. 들어가는 말

최근 인도의 정치계, 특히 우파 국수주의 진영에 의해 대두된 힌두전통의 매개체이자 상징으로서의 쌍쓰끄리땀(saṃskṛtam, Sanskrit)에 대한 강조는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천민권익운동을 주도했고 간디(M. K. Gandhi)의 힌두 전통주의에 입각한 상징정치에 저항했던 암벧까르(B. R. Ambedkar)가 소환되는 일은 의외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인도의 역사전쟁에서는 암벧까르가 보수 힌두전통을 비판하기 위해 발표한 글들이 거꾸로 힌두 국수주의 진영의 역사 재구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맥락을 강화

* 이 연구는 2020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www.kci.go.kr

시키기 위해 암벤까르가 인도 고대사와 고전언어의 학문적인 권위자로 포장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도가 필요했고 또 가능하게 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인도의 현대 정치를 규정하는 요소로서 언어가 가지는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같은 맥락 안에서 인도의 언어정책에 대한 독립시기의 정치적 입장들과 현재 다시 대두되고 있는 입장들은 표면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 맥락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나아가 암벤까르가 시도한 힌두 전통의 비판을 위한 역사의 재구성이 도리어 힌두 국수주의 정당화 논리와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 그 역사 재구성의 허구성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비판과 저항을 위해 창조된 역사적 허구가 원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맥락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아닌 학문적 재검토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암벤까르가 인도 현대정치에 재소환되는 맥락에 개입되는 세 층위의 허구들, 즉 암벤까르 자신이 구성한 인도 고대사의 허구와 암벤까르 자신에 관해 최근 구성된 허구 그리고 암벤까르가 정치적 전술로 선택한 허구를 재검토해서 이것들이 왜 허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한다. 그리고 그 허구성을 드러내는 서술이 동시에 그 정치적인 함축과 문제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II. 인도의 다언어와 국가체계

인도 헌법은 인도를 "주들의 연합(a Union of States)"이라고 부르고 있다.[1] 이것은 인도가 일반적인 연방(federation)과는 다른 국가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각 주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연방이 인도가 아니고 '인도'라는 국가 안에서 설정된 정치적 단위가 각 주들인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중앙권력이 확립되었던 것은 독립국가로서의 인도의 국가체계에 대해 고민하던 인도 정치엘리트 집단이 가진 암묵적인 합의 혹은 일반화된 현실인식에 기초한 것이

[1] 인도 헌법 1조 1항은 다음과 같다:
1. (1) India, that is Bharat, shall be a Union of States.

www.kci.go.kr

다.[2] 하지만 고대부터 존재하던 지역별 특성과 차이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영국 통치기에는 식민통치 아래로 기존의 정치단위들이 편입되면서 구성된 토후국(princely state)과 같은 정치적 단위들과 함께 영국의 통치상 편의를 위해 설정된 통치 단위들이 섞여서 자리 잡고 있었다.[3] 하지만 독립 이후에는 주 단위 설정 원칙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이미 식민시기부터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이하 INC)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결정이 방향타가 되어 현대 인도의 언어에 따른 주 단위 설정이 고착되었다. INC는 이미 1917년에 지역 조직을 각 지역에서 언어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고, 이는 1920년 낙뿌르(Nagpur) 전당대회에서 공식 추인되었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 INC는 PCC(Pradesh Congress Committee, 국민회의 지역위원회)[4]들을 언어구분선에 따라 재설정하고 21개의 PCC들을 정해, 이 각각의 위치와 해당되는 언어들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중요성이 당시에는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했지만, 당시 통치를 행하고 있던 영국이 정한 영국령 인도 지방단위(Provinces of British India)들이 9개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의미심장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Adeney, 2007: 55).

이 INC의 결정은 정치적 필요에 따른 전략적인 것이었는데, 소통이 가능한 언어의 단위로 지역의 공동체들을 구획짓는 것이 INC의 입장에서 대중을 선동하고 조직화하기에 최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Adeney and Bhattacharyya, 2018: 413). 이러한 선택은 주 경계 설정에 대한 논의 초기부터 동전의 양면처럼 각 지역민

2 헌법 3조에 따라 인도 중앙정부가 주정부의 동의 없이도 주들 간의 경계선을 재설정하거나 새로운 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도 헌법의 지향성과 맥락은 Austin(1999: 143ff.)을 보라.

3 식민통치 시기 영국은 인도를 몇 지방(province)으로 나누고 또 기존 왕국들을 토후국(princely state) 형태로 존치시키며 통치했는데, 역사적 상황의 전개에 따라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영국은 영어를 공식 행정언어로 전제하고 있었기 행정단위 분할에서 언어의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4 주 단위 조직에서 의사결정권을 갖는 단위를 말한다. 국민회의의 선거권 보유 회원(card-holding members of the Congress)에 의해서 선출되는 조직이며 이들이 각 주의 국민회의 의장(State Congress Presidents)과 전인도국민회의(All India Congress Committee)에 파견할 대표단을 선출한다.

www.kci.go.kr

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정치적 수사와 맞물려 이루어진다.[5] INC의 움직임이 공식화된 1917년과 1920년 이전에도 지도부 내에서는 언어를 기준으로 지역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그와 연관된 계기들은 인도 민족주의와 독립운동에서 의미심장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예로 영국식민시기 벵갈지방(Province of Bengal)의 일부였던 비하르(Bihar)를 따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INC가 1894년에 이미 공식적으로 표명할 만큼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다.[6] 언어 기준 지역 분할이 공식적인 정치 현안으로 대두된 것은 다름 아닌 영국 총독부에 의한 벵갈 분할령(Partition of Bengal)이었다. 1905년 인도 총독, 커즌 경(Lord Curzon)은 행정상의 편의성과 종교 간의 분리를 통한 민족운동의 견제를 위해 힌두교도들이 다수인 서벵갈과 무슬림이 다수인 동벵갈을 분할하여,[7] 서벵갈을 현재의 비하르 및 오리싸(Odisha/Orissa)주에 편입시키고 동벵갈은 지금의 아쌈과 통합하겠다는 벵갈 분할령을 발표한다. 이 분할령은 서벵갈 힌두교도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히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이들이 벵갈지역에서 장악하고 있던 경제권 상실에 대한 우려였다.[8] 서벵갈이 현재의 비하르주 및 오리싸주 지역과 통합된다는 것은, 서벵갈 지역의 힌두교도들이 벵갈지역 전체에서 누리던 지배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지역 단위 안에서는 소수자의 위치로 강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단위 설정은 곧바로 해당 주에서의 다수자와 소수자의 지위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이 걸린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불러온다.

벵갈분할령 반대운동에 INC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이 저항운동이 INC의

5 이러한 입장은 영국의 통치지역 분할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어우러진 Sitaramayya(1935: 250)의 비판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요지는 영국 행정체제는 지역 자치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실패했으며 그 이유는 "논리적이거나 집단정체성의 근거가 없이 황급하게 상황전개에 따라 만들어진 인구의 혼합"에 있다고 한다.

6 Sitaramayya(1935: 250)는 마헤쉬 나라얀(Mahesh Narayan)이 1894년에 비하르의 분리를 주장했고 1908년에 INC가 비하르를 별도 지역 단위(PCC)로 설정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7 벵갈 내부에서 동·서를 구분하면 각각 무슬림과 힌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은 결국 인도의 분할 독립은 물론 나중의 방글라데시 건국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8 이와 연관된 역사적 상황과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ohnson(1973)을 참조.

www.kci.go.kr

성격을 영국이 조직한 어용단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민족운동 단체로 변모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기 위해 영국은 상류층 무슬림들이 주축이 되는 전인도무슬림연맹(All-India Muslim League, 이하 AIML)을 창설하여 대응했지만, 저항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1911년 벵갈분할령은 철회되었다. 총독부의 당초 분할 계획은 종교에 따른 분할을 택한 셈이었고(Pandey, 2007: 536-538), 이와는 다른 행정구역 개편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새롭게 총독부가 제시한 개편안이 언어에 따른 개편안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언어에 따라 지역을 분할하겠다는 현실적인 결정이 공권력에 의해 내려진 최초의 연원은 영국식민당국이 제공한 것이지만, 그 상황을 만들어 간 것은 다양한 주체들이었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벵갈어, 오리싸어, 힌디어 구분에 따른 지역분할 체제 개편이 추진되게 되었다. 하지만 1911년에 벵갈분할령이 철회되기 이전 1908년에 이미 인도국민회의는 비하르를 별도의 지역단위로 편성하고 같은 해에 AICC(All India Congress Committee, 전인도국민회의최고위원회)를 각 지역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서 재편하였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INC는 1917년에 이미 씬드(Sindh)와 안드라(Andhra)를 별도의 단위로 설정하였다.[9] 따라서 언어에 따른 지역단위 설정을 주도한 것은 인도 정치엘리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I. 언어 단위 경계 설정의 함축

언어에 따른 주 경계 설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정치적 함축을 갖게 된다. 공통의 언어와 공통의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단위가 하나의 구체적인 지리적인 공간 안에 자리잡게 되는 현실을 정치적으로 구현해 주었기 때문이다. 언어를 매개로 규정된 종족성(ethnicity)에 기초해서 지방 정치와 행정 단위를 정하게 되어, 주 단위의 공동체야말로 고전적인 의미에서 언어와 역사 그리고 영토를 공유하는 '상상의 공동체', 즉 '민족(nation)'의 개념에 상응하는 단위로 구

9 따밀(Tamil)지역의 대표단은 물론이고 INC 의장이었던 베산트(Annie Besant)도 이에 반대했다(Adeney, 2007: 55).

www.kci.go.kr

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Adeney and Bhattacharyya, 2018: 413), 식민시기를 거치면서 도달한 국가형성과는 괴리된 국민형성(nation-building)의 과제가 남게 된 것을 의미한다. 주들을 얽어 묶은 이차적인 의미에서만 민족국가의 성격을 지닌 인도가 만들어지면서 인도의 현대 정치사를 지배하게 될 정치·사회적 배경이 고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INC가 언어 기준 주 경계 설정을 주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 주체들이 독립 이후의 인도에 미칠 파급력까지를 미리 고려하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다.[10]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인도 정치엘리트의 입장을 논의할 때 우리는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의 의사결정의 문제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11]

이와 다르게 지역단위에서의 '민족' 구성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방식의 구상도 있었다. 언어 경계에 따른 정치 단위의 설정을 거부하고, 세분화되고 파편화되어 지역 단위의 정치가 자율성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인 힌두 국가를 건설하려던 시도는 실제로 힌두 국수주의자 진영에서 시도된 바 있다.[12]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동일한 구상이, 힌두 국수주의자에 대해 힌두교도들 내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천민권익운동 진영에서도 제기되었다.[13] 또 다르게 AIML의 주 경계 설정에 대한 입장도 이런 맥락에서 논리적 일관성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에 대해 무

10 간디(M. K. Gandhi)를 비롯한 INC 지도부가 언어 기준 경계 설정을 기꺼이 찬동한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communalism) 문제를 다루는 여러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마지못한 결정이었다는 해석을 킹(King, 1997: 61)이 제기한 바 있지만, 이것은 이미 에더니(Adeney, 2007: 55)가 적절하게 반박하였다.

11 *Thoughts on Linguistic States*의 서문에서(*BAWS* I: 139) 암벧까르는 이 문제의 함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 온 사실과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 일관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밝히고 있다.

12 국가 단위에서 힌두 국가로서의 통일성을 구축하겠다는 지향성이 힌두 국수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조직 Jana Sangh의 지역 단위 설정에서 이미 현실화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100개의 자나빠다(Janapada, 몇 하부 행정 단위인 district들을 묶은 행정 단위)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Adeney, 2005: 99). 이 맥락이 인도의 정치에서 드러난 것은 2000년에 3개의 주가 그리고 2014년에 텔랑가나(Telangana)가 29번째 주로 독립된 일이 BJP정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힌두 국수주의자들에게 주 단위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단위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역학적 계산 속에서 선거구 개편과 맞물려 유리한 경우 주들을 새로 만들어 내는 일은 그다지 고민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다.

13 이에 대한 암벧까르의 해결책이 아래에서 소개할 "한 주에 한 언어" 해법이다.

www.kci.go.kr

슬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주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자치권에 가까운 강한 권한을 주는 것이 무슬림들에게 유리하지만, 무슬림들이 소수를 차지하는 주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무슬림들에게 불리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Adeney, 2007: 45-46). 결국 AIML은 현실적인 무슬림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입장이 일관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주 경계 설정의 문제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인도 국내정치의 중요 의제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다언어 국가 인도의 통일성에 대한 질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러 정치세력들은 각자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통합된 인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전선이 종종 언어 경계선과 맞물려 있다.[14]

IV. 쌍쓰끄리땀의 등장과 암벧까르(Ambedkar)의 소환

언어와 맞물려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경쟁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1946년 12월 최초 소집된 이후 파키스탄의 분할독립을 거쳐 1949년 11월 헌법을 통과시키기까지 활동했던 제헌회의(Constituent Assembly, 이하 CA)일 것이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이 방대한 제헌회의의사록(Constituent Assembly Debates, 이하 CAD)에 잘 드러나 있다. 공용어 확정 문제를 다루던 중 CA에서 지역언어들 중에서 공용어의 지위를 인정받은 언어들과 별개로 쌍쓰끄리땀이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언어도 아닌 쌍쓰끄리땀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주 다중적인 이해관계와 그 안에서 정치적 상징으로 작동하는 쌍쓰끄리땀이라는 언어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이 맥락에서 '불가촉천민(untouchables)'이라고 불리는 달릳(Dalit)[15]의 지위향상과 카스트(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며 인도 독립운동의 한 축을 이루어 온 대표적인 근현대 정치인이었던 암벧까르가 인도의 국어(national language)로 쌍쓰끄리땀을 지지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

14 뗄랑가나 주 분할에서 보이듯 이 문제는 현재 새로운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15 "달릳"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천민권익운동의 맥락은 Zelliot(2008: 450-453)을 보라.

www.kci.go.kr

가 무척이나 흥미롭다. 암벧까르는 힌두 전통의 카스트(제도)는 노예제보다 나쁜 사회악이며[16] 철폐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회악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힌두 종교전통을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인도 전통사회에서 4대 계급(varṇa)체계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을 물론이고, 쌍쓰끄리땀을 접하는 것 자체도 금기시되는 달릳의 지위향상을 주도했던 인물이 쌍쓰끄리땀의 옹호자였다는 기록은 의외의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현실정치의 맥락 안에서 암벧까르와 그의 쌍쓰끄리땀 옹호를 재소환한 주체가 바로 힌두 국수주의자 진영이라는 아이러니까지 함께하니 맥락이 더욱 궁금해진다.

1950년대에 작성된 정부 발주 보고문, *Report of the Sanskrit Commission, 1956~1957*의 200쪽에서 공용어로 힌디(Hindī) 대신 쌍쓰끄리땀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마이뜨라(Lakshmi Kanta Maitra)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쌍쓰끄리땀은 중립적인 언어라는 점이었다. 누구나 배워야 하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인도 내의 특정한 집단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17] 그리고 같은 쪽의 기록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쌍쓰끄리땀을 인도의 '국가언어(Rastrabhasa)'[18]로 삼자는 주장을 암벧까르가 적극 지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근거로 각주에서 P.T.I.의 보도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각주에 암벧까르가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19] 빠니니(Pāṇini)의 시기 이후로 사제계급(brāhmaṇa)이 주도하던 독점적인 지식체계와

16 *Untouchables or The Children of India's Ghetto*라는 제목으로 남은 208쪽 분량의 원고(*BAWS* V: 1ff.) 중에서 세 번째 글인 "Slaves and Untouchables"의 15쪽을 보라.

17 쌍쓰끄리땀을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제계급(brāhmaṇa)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북인도 지역의 인도아리안어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쌍쓰끄리땀을 배우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언어사적 현실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 무슬림이나 기독교도 등 종교에 따라 쌍쓰끄리땀 전통과 거리가 먼 집단들의 존재 자체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려해야 할 사회적 현실은 같은 지역 일상어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사회적 상층부에 속하는 학생들이 쌍쓰끄리땀의 차용 비중이 높은 "고급"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층민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현실이다(Anand, 1999: 2054c).

18 이 표현을 "rāṣṭra(왕국, 국가)"와 "bhāṣā(언어, 표준어)"로 이해해서 "national language"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오역이다.

19 해당 각주에서 1949년 9월 10일자 P.T.I.(Press Trust of India) 보도가 언급되는데 암벧까르가 쌍쓰끄리땀을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정하자는 개정안의 지지자로 언급되어 있다.

www.kci.go.kr

종교·사회적 이데올로기 전승의 매체로 사용되는 쌍쓰끄리땀을 국어 혹은 공용어로 정하는 일에 암벧까르가 지지를 보냈다는 의외의 사실에 대한 보도다.[20]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의 대표적인 정치인들 중의 한 명인 조시(Murli Manohar Joshi)[21]가 2016년 *The Times of India*에 기고한 글에서[22] 암벧까르가 쌍쓰끄리땀을 공용어로 지지했으며, 이 입장이 관철되지 못한 것은 몇몇 반대론자들의 미숙함(inexperience)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렇게 되어 결국 인도를 언어적으로 통일된 국가로 구현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지식인이자 언론인인 일라이아(Kancha Ilaiah)가 조시의 글에 대해 반박문을 게재하면서[23] 쟁점을 분명하게 만들어 내는 질문을 던졌다. "조시 박사가 사제계급과 달린이 동일한 종족에 속한다고 한다면, 조시 박사는 이 두 집단 간의 결혼을 주장할 것인가?"라는 수사적 질문이 조시가 주장한 바의 정치적 함의를 잘 드러내고 있다.[24] 카스트(제도)와 얽힌 힌두 전통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맥락에서 암벧까르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며, 암벧까르를 동원해서 힌두 국수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조시는, 결코 암벧까르가 원하던 카스트철폐의 길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조소적으로 담은 것이다.

일라이아가 지적하고 있는 핵심은 최소 15년간 쌍쓰끄리땀이 공공기관들에서 소통매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영어가 공용

20 이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쌍쓰끄리땀의 역사적이고 사회언어학적인 맥락은 Deshpande(2008)을 보라.

21 1991년부터 1993년까지 BJP의 대표를 지냈고 나중에 BJP가 참여한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정부에서 연방교육부장관을 지낸 극우 힌두 국수주의의 대표적인 인사다. 정치적으로 극우 민병대의 정치폭력 연관설 등 논란이 있기도 했다.

22 "Ambedkar wanted Sanskrit as national language," *Murli Manohar Joshi*, April 25, 2016.

23 Kancha Ilaiah는 온라인 매체인 *The News Minute*에 2016년 4월 27일자로 "Why Ambedkar supported Sanskrit as national language: A response to Murli Manohar Joshi"라는 비판 글을 게시하고 있다. [https://www.thenewsminute.com/article/why-ambedkar-supported-sanskrit-national-language-response-murli-manohar-joshi-42273, 검색일: 2018. 9. 24]

Kancha Ilaiah는 정치학자이자 작가인데 기타후진집단(OBC)으로 분류되는 꾸루마 골라(Kuruma Golla) 카스트 출신이며, 카스트 하층민과 천민들의 권익 신장에 주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4 전통적으로 카스트 간의 상하관계는 결혼과 음식물 섭취의 맥락에서 외적으로 잘 드러난다.

www.kci.go.kr

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암벧까르가 쌍쓰끄리땀을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암벧까르나 네루(Jawaharlal Nehru)와 같은 근대화론자였던 정치엘리트들은 전체 인구 중 1%도 못 되는 사람들이나 읽고 쓸 수 있으며 사제집단 안에서도 통용이 거의 불가능한 쌍쓰끄리땀이라는 고전언어를 국어나 공용어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마이뜨라(L. K. Maitra)와 같은 극단적인 힌두 전통주의자들을 상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실현불가능한 쌍쓰끄리땀의 공용어 채택에 형식적 지지를 보낸 것이었다는 말이다(Ilaiah, 2016). 실현되지 않을 주장을 받아들여 대의명분을 확보한 후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 결국 영어를 공용어로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이 근대화론자들의 입장이었다는 뜻이다. 결국 CA에서 영어를 가장 편하게 구사하던 유학파 출신의 암벧까르와 네루는 암묵적인 공감을 이루고 있었다고 일라이아는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암묵적인 합의는 개인적인 언어구사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대화론자로서의 정치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러한 암묵적 합의의 맥락이 각 주체들마다 다르다는 것도 중요하다. 인도의 근대화란 당시에는, 사회주의적이라고 할지라도, 서구지향적인 것이었고 그 당시 서구가 주장하는 '보편적인 근대화'를 따르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영어를 택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자, 근대화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식민통치자의 언어를 독립 인도의 공용어로 주장하기 어려운 대의명분을 고려해서 두 가능한 선택지들, 즉 힌디와 영어 사이의 선택에서 이 두 정치지도자는 모두 영어를 지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25] 영어를 지지하되 대의명분의 면에서 가장 강력하며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쌍쓰끄리땀을 방패로 삼아 힌두 전통주의자들의 입지를 흔드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 전략이 필요했던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5 일라이아도 앞서 언급한 기고문에서 자신의 견해임을 전제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www.kci.go.kr

V. 국어와 공용어 논쟁의 맥락

언어를 매개로 주 단위 정체성과 독립성을 구축한 것은 다원적인 문제를 야기했지만, 반면 인도가 단일국가로서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하부단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26] 또 다르게 인도의 국어나 공용어 논쟁이 개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맥락은 공직에 진출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언어를 정하는 일과 연계되어 있다.[27] 벵갈지역의 일부 전통 상류층이 영어를 받아들이고 영국식민시기 관료사회로 진출하면서 기득권 집단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언어 사회에서 자신의 언어가 기득권을 보장하는 언어가 된다는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8] 따라서 CA에서 인도의 국어와 공용어를 정하는 문제는 첨예한 구체적 이해관계와 다양한 정치적 명분의 충돌이 예정된 혼란의 전투장을 만들어낼 시한폭탄이었다. “인도”를 만들고 이 “인도”에 단일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불가능한 숙제를 떠안은 상황이었지만, 국어와 공용어 확정의 문제는 예상외로 전선이 분명하게 나뉘는 고전적인 대립의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었다. 언어 문제는 CA가 소집되자마자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대의원들 모두가 직접 이 문제의 심각성

26 소선거구제와 연방제도가 결합되면서 카스트 집단이 각 주의 정치권력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되었고 이 틀 안에서 각 선거구마다 소수자 집단과의 연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맥락이 만들어진다. 이는 현대 인도정치의 안정성을 최하부 단위에서 이루어 내는 핵심적인 기제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카스트의 정치화와 선거구 획정의 정치적 함축은 별도의 상세한 논의를 요하는 문제이지만, 지금은 이러한 정치제도의 등장이 언어에 따른 경계설정과 맞물려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도록 하겠다. 소선거구 획정의 함축에 대해서는 Chhibber(2001: 54ff.)의 논의를 참조하라.

27 같은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두 언어가 힌디와 우르두로 차별화되고 경쟁관계에 들어간 구체적인 맥락도 종교적 이질감이 아니라 각 종교집단과 연계된 언어가 어떻게 사회정치적 기득권을 확보하는 장에서 관철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출발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다; Brass(2004: 368)을 보라. 힌디와 우르두의 구분선을 표기방식을 기준으로 구축한 맥락과 의미에 대해서는 King(2001)을 참조하라.

28 중앙정부 공무원 채용의 전제가 되는 언어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자부심 이상의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맥락에서 주목할 점은 상이한 종교집단 혹은 카스트 단위별로 언어적 구분이 존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영국인들의 역할이 인도의 지역언어들이 갖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Misra 2013: 245-246). 큰 틀에서 이 맥락을 명확하게 밝힌 대표적인 학자는 Cohn인데 Cohn(1987: 224-254)과 Bhagat(2013) 참조.

www.kci.go.kr

을 체험하는 계기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몇몇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어로 발언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29] 자세한 서술은 생략하고 본 논문의 논의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CA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상황만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949년 9월에 CA에서 공용어 선정의 맥락에서 헌법초안작성위원회(Constitution Drafting Committee)의 일원이기도 했던 아양가(G. Ayyangar)가 제시한 절충안을 두고 충돌이 있어났다. 이 아양가(Ayyangar)의 개정안은[30] 힌두 전통주의자들의 반대를 불렀다. 힌두 전통주의자이자들은 대부분 힌디패권론자들이었고, 되도록 빠르게 공용어 혹은 국어를 힌디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고빈다쓰(Seth Govind Das)는 그의 연설에서(*CAD* IX, 1949년 9월 12일 연설) 아주 명확하게 우르두를 배제하는 힌디를 주장하고 우르두와 연관된 문화 자체가 인도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힌두 전통주의자들의 반무슬림 정서와 입장을 대변했다.[31] 분리독립이 현실화된 상황을 배경으로 힌디패권론자들의 강경한 입장이 제기되면서 수많은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반면 무슬림 대표단과 남부 출신 힌두들은 이에 반대하는 개정안들을 제출했다. 힌디패권주의는 북인도의 무슬림과 시크(Sikh)뿐 아니라 남인도의 힌두들까지도 소외시켰다. 이 과정에서 남인도에서는 드라비다 옹호론(pro-Dravidian)이 대두되었고, 힌디패권론자들이 자신들을 아리안(Aryan)과 동일시하게 되어, 결국 반브라흐만(anti-Brahmin) 운동을 강화시키고 말았다. 남인도 사람들도 식민통치자들에 의해 강요된 영어에 대한 반감이 강했지만, 델리에 만들어진 새로운 중심부에서 강요하는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고빈다쓰의 연설 다음날 네루는 아양가의 수정안을 지지하고 고빈다쓰를 반박하는 긴 연설을 했는데, 자주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간디의 권위를 동원해서 공용어 선정은 "북인도에서 발전된 혼성문화(composite culture which grew up in Northern India)"를[32]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민족

29 힌디 패권론자들의 도발적인 태도는 큰 반발을 불러 왔다. Jaffrelot(2010: 14) 참조.

30 이 안은 네루가 견지했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힌두쓰따니에 대한 강조를 반영하고 있었다. Nehru(1946: 54f.) 참조.

31 자세한 맥락은 Jaffrelot(2011: 15-16)를 참조.

32 이 "인도의 혼성문화(composite culture of India)"라는 기준이 네루가 힌디에 대해 갖는 태도

www.kci.go.kr

의 아버지(Father of the Nation)"에 대한 배반이 될 것이라고 반대론자들을 압박했다. 간디가 원했던 언어가 공용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면, 네루는 간디가 주장했던 바 — 힌디와 우르두를 모두 아우르는 의미에서 — 힌두쓰따니(Hindustani)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을 것은 당연해 보인다. 네루는 국가를 통합시킬 언어에 대한 개인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 그것은 힌두쓰따니였는데 — 숨기지 않았지만 국민의 뜻에 반해 가면서 이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33]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다. 그런데 네루가 했던 연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공용어가 반드시 힌두쓰따니는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34] 이 연설에서 네루는 명확하게 영어를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35] 영어가 엘리트들의 언어이자 주들 간의 소통 언어가 된 현실을 반영한 태도였지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 이외의 정당근거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당시의 현실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영어를 옹호하는 입장을 제시하면서까지 강하게 네루가 반발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힌디패권론자들의 주장은 저지될 수 있었다.[36] 결국 네루 중심의 집단이 가진 도덕적 권위가 현실적 대안을 관철시킨 것이다. '언어전쟁'이라고 할 만한 충돌이 막바지에 이를 즈음 네루는 CA에서 온건파들을 대표하고 있었고, 힌디패권주의자들에게 일정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지만 특히나 쌍쓰끄리땀화된(Sanskritised version) 힌디에 독립국가 인도가 빠져드는 일은 막아야 했다. 이것

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즉 힌디가 다른 언어들까지를 아울러 발전해 가는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하여 장기적으로 국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는 네루 자신의 개인사와도 연관되는데, 쌍쓰끄리땀을 기준으로 힌디를 재구성하는 언어 순화에 네루는 부정적이었다.

33 *CAD* IX. 1949년 9월 13일 연설.

34 *CAD* IX. 1949년 9월 13일 연설.

35 Jaffrelot(2011: 16)는 이러한 네루의 태도와 그의 "cosmopolitan leaning"이라고 할 만한 지향성을 지적하고 있다. 네루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범세계주의적 지향에 대해서는 네루의 입장과 태도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네루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자본주의의 문화적 다면성을 밝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예로 So and Chu(2018: 35-37)에 제시된 Daniel Bell의 논의 참조.

36 복잡한 문제는 "힌디"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온건파들은 "힌디"라는 이름으로 힌두쓰따니를, 강경파들은 "힌디"라는 이름으로 쌍쓰끄리땀에 가까운 힌디를 주장하고 있었다.

www.kci.go.kr

은 남인도 사람들은 물론이고, 파키스탄을 택하지 않고 인도에 남았던, 소수에서 더욱 소수로 전락한 무슬림을 국가 건설에서 소외시킬 것이었기 때문이다. 네루는 힌디를 받아들이되 "힌디"의 의미를 "힌두쓰따니"로 받아들이겠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다. 힌두 전통주의자들이 쌍쓰끄리땀을 매개로 삼아, 우루두로 대표되는 아리안 이외의 문화를 배제하고자 할 때 네루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근대화론자이자 사회주의자로서 언어적 순혈주의에 반대하고 현실의 혼성문화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제한 것이었다. 이 맥락에서 암벧까르는 네루와 공감하는 부분이 컸다고 보인다. 하지만 CA 내에서 근대화론자로서 암묵적인 공조를 유지하던 네루의 강력한 개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막판의 진통을 생각한다면, 암벧까르가 쌍쓰끄리땀을 지지하면서 영어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시도는 전략적으로 더욱 유효한 것이었다.

네루가 이 문제에서 암벧까르에게 강력한 힘이 되지 못한 이면에는 네루가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결정론자였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었다(Kaviraj, 1992/2010: 159). 다시 말해서 네루는 천민이나 카스트 문제는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곧 소멸될 부차적인 문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헌법 입안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던 암벧까르의 입장에서 네루와 완벽한 공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아양가의 제안에 대해 약 400개의 수정안이 제출되고 그것들이 문제 삼는 내용들을 큰 가닥으로 정리해서 만들어진 최종안은 대략 이러했다. 의회는 공표이후 15년이 지나면 쌍쓰끄리땀에서 기원하는 숫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공화국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을 받아 힌디가 지역 법원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영어 번역이 제공되는 한에서 법률을 지역 언어로 공표할 수 있으며, 처음 13개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언어 목록에 쌍쓰끄리땀이 추가된다는 것이었다.[37] 마침내 타협안이 관철되었고 데바나가리문자로 표기되는 힌디가 인도

37 헌법 제8별항에 포함된 언어는 원래 헌법 반포시에는 14개였지만, 그 후 개정을 통해 현재는 22개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기준으로 Sanskrit, Santhali, Sindhi 이 세 언어는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은 언어들이다.

www.kci.go.kr

의 공용어로 결정되었다.[38] 힌디를 공용어로 정한다는 법률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CA 안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고[39] 그리고 이 상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40] 결국 암벧까르는 힌디패권론자들과도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VI. 암벧까르의 재소환

공용어를 정하는 논쟁의 전선이 CA 안에서 분명해진 것은 주 경계 설정이 언어에 따라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관철된 뒤였다. 이 원칙을 전제로 암벧까르는 무슬림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자의 권익을 극대화시킬 방법을 찾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회적인 약자인 달릳의 권익향상이었기 때문이다. 암벧까르의 입장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실제로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그의 주 관심사는 사회적 최약자인 달릳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구현이었다.[41] 이 맥락에서의 고민을 암벧까르는

38 이러한 결론을 일반적으로 "The Munshi-Ayyangar Formula"라고 부른다. 후에 1965년의 데드라인이 다가오자 의회가 1963년에 공용어법(Official Languages Act)를 마련해서 영어를 부가공용어로 설정한다.

39 암벧까르 자신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 Möller and Schierenbeck(2014: 49) 참조.

40 문제의 이면에 분명한 언어현실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힌디 화자의 비중이 인도전체 인구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단순한 사실뿐 아니라 힌디가 실제로는 지역언어로서 통일된 단일언어로 간주되기에 가장 취약한 언어였다는 사실도 중요한 문제다. 힌디는 실제로 가장 표준화가 덜 된 지역언어였다. 1991년 센서스에 따르면 "Hindī"라는 이름 아래에 48개의 언어와 모어(languages and mother tongues)가 그 외 명기되지 않은 다른 것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확인된다(Brass, 2004: 356). 중세시기(14~18세기)부터 브라즈(Braj)와 아와디(Awadhi)의 분리 문제가 있었고, 게다가 이 용어가 라자쓰따니(Rajastani), 마이틸리(Maithili) 등등을 포함하는 "(통합) 북인도 인도아리안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Kaviraj(1992/2010: 159)를 보라. 물론 대중매체의 영향과 최근의 변화, 코드 믹싱과 스위칭은 또 다른 문제다.

41 이 맥락에서 암벧까르가 영국 식민체제를 힌두 전통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사회보다 낫다고 판단했던 상황들도 있었으며 — 대표적으로 1930년 8월 8일에 낙뿌르(Nagpur)에서 열린 All-India Depressed Classes Congress (AIDCC) 1차 총회 — 이것이 그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는 족쇄가 되기도 했다. 암벧까르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다만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읽고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직접 건드린 극단적 힌두 전통주의자의 입장은

www.kci.go.kr

1955년에 출간한 『언어단위 주 설정에 대한 사색(*Thoughts on Linguistic States*)』에서 명확하게 논하고 있다. 이 저술에서 암벧까르가 제시한 원칙은 바로 "한 주에 한 언어(One State, One Language)"의 원칙이었다. 이는 한 언어에 한 주를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니고(One Language, One State이 아니고!), 한 주는 한 언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작은 단위의 주들을 다수 설정한다는 것이었다. 즉 각 주에서의 지배적 집단이 확정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주 경계 설정의 과정에서 소수자 권리의 정치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주 단위 정치권력의 약화와 중앙권력의 강화를 통해 헌법과 사법체계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소수자 권익보호를 추가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이 틀 안에서 본다면, 지방권력이란 바로 언어단위로 설정된 지리적인 공간 안에서 다수 혹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집단의 독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용어 지정과 주 경계선 확정에서부터 지방권력의 비대화를 막아 내고, 중앙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영어만큼 현실적인 해결책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대의명분의 면에서 입지가 약한 영어를 강한 대의명분을 지녔지만 채택 불가능한 쌍쓰끄리땀과 나란하게 세우면서, 상위 카스트 지향의 힌두 전통주의자들의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우회로로 쌍쓰끄리땀을 지지했던 것이다. 힌두 전통주의자들 누구나 쌍쓰끄리땀의 비현실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42] 공개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알고 있지만 이에 반대할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쌍쓰끄리땀으로 대표되어 온 인도의 전통은 바로 지역언어와 지역전통을 초월한 보편적 상부구조로서의 인도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조시의 기고문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추가적인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암벧까르가 쌍쓰끄리땀을 열심히 공부했고 이것은 오직 아리안 이주설 —

Shourie(1997)에서 보이는데, 사실관계의 왜곡이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나, 정확한 맥락 설정이 핵심 문제라고 보인다. 암벧까르를 매국노로 매도하기에 앞서 그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의 맥락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42 그리고 일라이아는 앞서 언급한 기고문에서 카스트의 상층계급인 브라흐만들이 모두 쌍쓰끄리땀이 아니라 영어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RSS(Rastriya Swayamsevak Sangh)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인 Saraswathi Shishu Mandir들에서 왜 쌍쓰끄리땀 교육을 하지 않는지 반문한다.

www.kci.go.kr

조시의 표현은 "Aryan invasion(아리안 침공설)" — 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며, 암벧까르는『베다(*Veda*)』와『아베스타(*Avesta*)』를 열린 자세로 공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바로 천민 출신의 암벧까르도 객관적인 연구와 고민을 통해 아리안 문화의 진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힌두전통의 위대함에 동의했다는 함축을 드러낸다. 바로 이러한 동의와 공감이 있었기에 암벧까르가 쌍쓰끄리땀을 국어/공용어로 주장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라이아가 반박하고 있듯이, 실제로 암벧까르가 자신의 연구에 따라 내린 결론은 사제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종교와 그에 걸친 카스트(제도)는 암벧까르 자신이 이해한 바의 아리안 전통의 왜곡이자 타락이라는 것이었음을 조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암벧까르가 주장한 아리안 토착설의 주된 함축은 아리안들이 원래 인도에 있었던 위대한 문명의 담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힌두 전통에서 천민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포함한 아리안 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동일하게 인도에서 살던 토착민들이었다는 것이다.[43] 이 주장은 결국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민들의 우월함에 기초한 사회 집단의 분할에서부터 카스트(제도)가 시작되었다는 역사해석의 근본적인 전제를 부정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44] 조시가 암벧까르의 역사관의 일부만을 왜곡해서 제시하면서 힌두 국수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맥락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수주의적 해석은 인도 토착의 아리안 전통과는 다른 외래전통, 즉 이슬람과 기독교를 타자화하는 좋은 도구로 활용되고 이들을 "진정한 인도인"으로 개종시키거나 인도에서 추방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만들어 준다. 근대화론자이자 인도 민족주의자로서 암벧까르는 일찌기 로이(Roy)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된 인도전통의 재해석 혹은 불온한 전근대적 요소를 제거하는 지적인 세탁작업의

43 힌두 국수주의자들의 이해에서는 유럽 문명의 뿌리를 이루는 아리안 문명의 발상지가 인도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아리안의 인도 이주는 인도사뿐 아니라 세계사에서 중요한 사건의 일부를 서술하고 있으며 언어학적 자료들과 비언어적 자료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아리안의 인도 이주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가설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상식적인 견해이다. 최근의 쟁점과 맥락에 대해서는 Pereltsvaig and Lewis(2015)를 보라.

44 암벧까르는 이 맥락을 신념체계의 차이에 따른 집단의 구분이 나중에 왜곡되면서 타락한 기득권집단에 의해 — 극복이 불가능한 형태로서의 — 인종의 차이에 따른 구분으로 포장되었다고 해석한다.

www.kci.go.kr

맥락 안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결론은 인도에서도 원래는 카스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카스트(제도)는 오해와 타락에 의한 퇴보 그리고 기득권을 챙기려는 사제(브라흐만) 계급의 거짓이 만든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었고,[45] 당연하게도 암벧까르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다.[46]

암벧까르에게 중요한 것은 사료나 사실이 아니라 카스트제도를 통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서사의 구축뿐이었다. 이 '과학성'에 대한 열등감과 과장은 제헌회의 안에서 쌍쓰끄리땀을 국어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마이뜨라(Maitra)의 경우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는 CA에서 쌍쓰끄리땀이 과학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빠니니문법에 드러나는 고대 인도의 음운분석 체계 일부를 주절주절 세어 가면서 제시하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한다. 결국 힌두 국수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점은 쌍쓰끄리땀과 쌍쓰끄리땀이 담지한 문화 자체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위대한 것이라는 선전이 가능해야 하는데, 앞선 조시의 예에서처럼 암벧까르가 여기에 동원되기에 적합한 맥락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달릳 출신 최초의 유학생이고 지성인이며 인도헌법의 초안을 만든 '근대적 지성인'으로서 암벧까르도 전문성을 갖출 만큼의 쌍쓰끄리땀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그 결과 암벧까르 자신이 원초적인 쌍쓰끄리땀 전통 안에는 전근대적이라고 흠잡을 만한 요소들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주장을 만들어 내는 이유다.

VII. 암벧까르의 고대 인도사 연구의 신화

이 맥락에서 암벧까르가 쌍쓰끄리땀 연구에 매진했다거나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신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실'이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충분하지가 못하다 보니, 새로운 사실들이 창조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필요는 근대의 '신화'

45 Ambedkar, *Annihilation of Caste*(*BAWS* I: 77)를 보라.

46 근대 신힌두운동(neo-hinduism)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과거사의 재구성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세탁된 아리안 문화는 식민시기 선교사나 영국제국이 가진 우월성의 모델을 철저하게 답습한다(Jaffrelot, 2011: 59). 근본적으로 암벧까르의 역사재구성을 통한 저항도 이 한계에 묶여 있다.

www.kci.go.kr

를 낳게 된다. 우선 암벧까르가 독일에서 인도고전학의 세계적인 대가들에게서 교육을 받았다는 신화가 허구임을 밝히고, 실제로 그가 연구했다고 간주되는 것은 미국 유학 초기의 근거가 희박한 주장과 일방적 해석을 담은 인류학적 자료들의 재구성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겠다. 이는 암벧까르의 주장이 그 허구성으로 인해 정반대의 정치적 주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근본적인 맥락이라는 것을 밝히는 첫 단추이기도 하다.

벨빙켈-쉠프(Bellwinkel-Schempp)는 2003년에 발간된 독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대학 남아시아연구소 소식지의 기고문에서 암벧까르가 본(Bonn)대학에서 쌍쓰끄리땀을 배웠다는 이야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에 대해 기고문을 썼다. 이 기고문에는 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암벧까르가 자필로 적어 제출한 이력서가 두 페이지에 걸쳐 도판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쪽 기고문의 끝에서는 네 쪽 분량의 기고문의 확장된 판본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그 URL을 명기하고 있다. 두 쪽 기고문의 끝에 명기된 URL은 2018년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웹페이지에서 네 쪽짜리 기고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47] 그런데 문제는 두 쪽짜리 기고문에는 제목이 분명하게 "Dr. Ambedkar-Studies at Heidelberg(하이델베르크에서의 Dr. Ambedkar[에 대한] 연구)"라고 되어 있던 제목이 네 쪽 분량 기고문에는 아예 바뀌어 나타나서 "Ambedkar studies at Heidelberg"라고 그 내용이 모호해지고 만다. "하이델베르크대학의 암벧까르에 대한 연구"가 갑자기 "암벧까르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연구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독자라면 후자의 해석을 따르게 될 것인데, 이 네 쪽짜리 파일(Bellwinkel-Schempp, 2003c)이 하이델베르크대학이 아닌 미국 콜럼비아대학의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출간 연도나 출처가 명기되지 않은 채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 파일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파일의 제목 "Ambedkar studies at Heidelberg"을 보고 암벧까르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했다는 내용을 다룬 글로 오해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라오(Rao, 2009)는 암벧까르가 인도에서는 쌍쓰끄리

47 두 쪽짜리 기고문이 Bellwinkel-Schempp(2003a)이고 네 쪽 분량의 판본이 Bellwinkel-Schempp(2003b)이다.

www.kci.go.kr

땀을 전공할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 하이델베르크대학에 등록할 만큼 인도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하고 있다. 달린인 그가 인도에서 쌍쓰끄리땀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들도 이러한 그의 좌절을 적고 있다. 그래서 암벧까르가 1921년에 유명한 인도학자 야코비(Hermann Jacobi)의 수업을 듣기 위해 (본대학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 등록을 했다는 전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로 라오는 벨빙켈-쉠프의 글에 따라 암벧까르가 (본대학이 아니고!) 하이델베르크대학의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48] 현대의 인물에 대한 오해와 전설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예가 여기 하나 더 있는 셈이다. 우선 유럽은 물론이고 인도에서도 인정받는 인도학자였던 야코비가 당시 본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암벧까르가 1921년 4월 29일자로 본대학에 등록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암벧까르가 본대학에 등록할 때에 경제학 전공으로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벨빙켈-쉠프는 본대학 학생등록부에 기록된 바 암벧까르가 경제학 전공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있다(Bellwinkel-Schempp, 2003a: 3).

그렇다면 어떻게 암벧까르가 본대학에서 쌍쓰끄리땀을 배웠다는 전설이 만들어진 것일까? 벨빙켈-쉠프가 제공한 암벧까르가 자필로 작성한 이력서/자기소개서에는 야코비 교수의 "소개(Vermittlung)"로 본대학이 암벧까르에게 자격요건을 갖출 때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해 주었다는 대목이 있다.[49] 또한 같은 글에서 벨빙켈-쉠프는 암벧까르가 어떻게 야코비와 접촉하게 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점도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수업에 참가한 기록이 없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결국 암벧까르가 본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수학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해야 한다. 또한 쌍쓰끄리땀을 배운다거나 인도학 분야의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편이 맞다. 본대학에서 활동하던 인도학자 야코비의 명성은 당연히 암벧까르가 본대학에 간 이상 본에서 쌍쓰끄리땀을 공부하지 않

48 Rao(2009: 330), fn.36에서는 Bellwinkel-Schempp(2003b)의 URL을 그 출처로 제시하고 있다.

49 Bellwinkel-Schempp(2003a: 4)에 복사되어 삽입된 암벧까르의 자필 이력서 안에는 야코비 교수가 본대학에 암벧까르를 소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www.kci.go.kr

았을까 하는 추측을 낳게 하지만, 야코비의 수업을 들었다는 기록은 물론 다른 정황증거들도 전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암벧까르 연구서들도 분명하게 암벧까르가 본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전하고 있다.[50] 역사적으로 사실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야코비와 같은 대가의 후광을 업은 채로 쌍쓰끄리땀 텍스트에 대한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며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로 암벧까르를 추켜세우는 일이 본대학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인도에서 천민의 신분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쌍쓰끄리땀을, 유럽은 물론이고 인도에서도 인정받는 대가에게서 암벧까르가 교육을 받았다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입견은 곧바로 암벧까르가 쌍쓰끄리땀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객관적인 검토를 거친, 다시 말해서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을 통해 검증한 타당한 것이라는 수용자들의 태도로 이어진다. 암벧까르가 본대학에서 쌍쓰끄리땀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이제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다.[51]

암벧까르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전기라고 할 수 있는 끼르(Dhananjay Keer, 1913~1984)의 1954년 저술(Keer 1954: 49)에서는 암벧까르가 본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한 달 정도 본에 갔던 일과 런던에서 학위를 마치고 나서 3개월이 못 되는 기간 정도를 본에서 공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본대학에 간 맥락도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미국과 영국을 거치며 학위를 받은 데다 독일까지 다녀왔으니 너무나 훌륭한 지성인이 되었다'라는 내용 없는 칭송을 보태고 있을 뿐이다.[52] 결국 1954년 이후에 유포되기 시작한 암벧까르에 대한 또 하나의 전설이 아닐까

50 암벧까르가 1922년과 1923년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이 기록 혹은 추측들도 정확하게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결국 암벧까르가 본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주장의 공식적인 근거는 앞서 언급한 본대학의 학생등록부 원장의 기록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Mishra(2010: 247)에서는 연대기를 정리하면서 1922년과 1923년 상황을 제시하는데 본대학에서 암벧까르가 경제학을 공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M. Ambedkar(2005: 50)에서도 저자는 암벧까르가 본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51 일라이아(Ilaiah, 2016)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인다.

52 Keer(1954: 50). 암벧까르에 대한 인물 연구에서 선구적인 저술이지만, Keer의 책은 기본적으로 위인전이나 성인전에 상응하는 상투적인 것이다.

www.kci.go.kr

추정된다. 암벧까르는 1920년에 인도에서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7월에 런던으로 와서 런던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학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무척이나 곤궁한 생활을 하던 시기가 시작된 것이었다. 결국 1922년에 박사(Ph.D.) 학위논문을 경제학분야로 런던대학(The University of London)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본대학에 등록하면서 암벧까르가 염두에 둔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53]

그렇다면 암벧까르의 쌍쓰끄리땀 독해 능력이나 혹은 인도고대사에 대한 식견은 어느 정도였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암벧까르가 본대학에서 쌍쓰끄리땀을 배웠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1921~1923년의 기간 훨씬 이전에 이미 암벧까르는 인도역사에서의 카스트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피력한 바 있다. 1916년 5월 9일에 콜럼비아대학에 유학하고 있던 당시 인류학 교수였던 골든와이저(Alexander Goldenweiser, 1880-1940)의 세미나 시간에 "Castes in India: Their Mechanism, Genesis and Development"라는 글을 발표한 것이다. 암벧까르 자신은 이 글에서 자신이 주장한 바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 글에 대해 큰 만족을 표시했다. 그래서 1917년 5월에는 이 글이 *Indian Antiquary*에 게재되었다. 이 글의 내용에 대한 그의 확신이 잘 드러나는 것은 한참 후인 1944년 12월 1일에 작성한 *Annihilation of Caste*의 3판 서문에서 자신이 1917년 출간한 글을 새 편집본 안에 포함시키고 싶었지만 시간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암벧까르가 표현하고 있다(*BAWS* I: 26)는 사실이다. 암벧까르가 인도고대사와 인도의 카스트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기본 태도는 이미 1916년 틀이 갖추어진 이래 변화를 겪은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글은 암벧까르가 나름의 고민, 보다 정확하게는 상상을 통해 카스트의 발생과정에 대해 외혼제(exogamy)를 내혼제(endogamy)가 대체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54] 그리고 이 내

53 필자는 경제적인 지원을 얻을 가능성을 본대학에서 모색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그리고 Bellwinkel-Schempp(2003a)에 제시된 자필 이력서를 근거로 필자가 판단하기에 암벧까르의 독일어 구사 능력은 상당하다고 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54 *Castes in India: Their Mechanism, Genesis and Development*(*BAWS* I: 9)에서 암벧까르는 본인이 이해한 핵심을 이렇게 제시한다.

www.kci.go.kr

혼제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인도의 종교적 악습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설명의 요지다.[55] 인도의 모든 사회집단이 외혼제를 따른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왜 당연하지 않은 내혼제 관습이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암벧까르는 설명을 시도하는데, 그 주된 답은 내혼제가 인도의 토착전통일 수 없고, 또 사제계급과 끄샤뜨리야 계급처럼 계급제도 안에서 특혜를 누리던 집단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집단을 외부에 대해 고립시키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집단들이 이러한 상층집단을 모방하면서 이러한 관행이 일반화되었다(*BAWS* I: 18)는 것이다.[56]

복잡다단한 인도사회의 카스트 발생과 확산 그리고 고착화를 다루면서 암벧까르가 아주 드물게 마누(Manu)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마누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57] 암벧까르가 카스트의 발생과 고착을 설명하는 일에서 실제 쌍쓰끄리땀이나 텍스트나 다른 1차 사료를 고려하거나 다루는 일은 전혀 없었다는 뜻이고, 이는 그에게 고민할 내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상상 속에서 자신이 배운 바 서구적인 인류학적 분석, 특히나 경제적 역학관계에 입각한 분석이 갖는 정합성이 가상의 고립된 구조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카스트는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역학관계 안에서 생겨난 착취 구조이자 악습이라는 그의 관념은 그 후로도 바뀐 적이 없다. 결국 카스트(제도)는 노예제도보다도 훨씬 극악한 경제적 착취를 위한 사회적 악습이라는 결론은 암벧까르의 뇌리에 처음부터 자리잡고 있었고 역사적인 사료나 사실관계의 확인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58]

암벧까르의 카스트에 대한 이해는 카스트의 핵심 요소로 불가촉성(Untouchability)을 설정하고 정치적 지위는 종교적 혹은 제의적(ritual) 지위에 부속되는 것

55 결국 인도의 관습들이 모두 내혼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남녀성비 조절의 수단이라는 논리가 전개된다. *Castes in India: Their Mechanism, Genesis and Development*(*BAWS* I: 12) 참조.

56 이것이 "Sanskritization"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57 예로 *BAWS* I: 16 참조.

58 *Untouchables or The Children of India's Ghetto*라는 제목으로 남은 208쪽 분량의 원고(*BAWS* V: 1) 중에서 세 번째 글인 "Slaves and Untouchables"의 15쪽과 18쪽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

www.kci.go.kr

으로 이해한 면이 있다(Fitzgerald, 1996: 274f.). 따라서 암벧까르는 정치적 개입을 통한 종교적 지위 혹은 계급 체계의 타파가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힌두 전통의 도덕성을 함양하여 카스트 자체의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간디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면에서 암벧까르가 왜 정치적인 맥락에서 불교로 집단 개종을 단행하게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태도는 중앙정부의 정치권력과 헌법체계를 동원하여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 암벧까르는 1916년에 자신이 만들어 낸 결론에서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었다. 결국 암벧까르가 한 일은 당시 비전문가인 유럽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의 이차자료와 상상만으로, 그리고 자신이 인도에서 보고 배운 개념들의 결합을 통해서 인도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9] 그가 사용한 이차자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빙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인도학 연구가 본격화되기 전의 출간물들이고, 그중에서도 비전문적인 출간물들에 해당하는 자료들이다.[60]

VIII. 암벧까르의 재소환과 재등장

결국 암벧까르가 인도에서 배우지 못했고 배울 수 없었던 쌍쓰끄리땀을 독일에서 체계적으로 배웠다거나 하는 전설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암벧까르가 인도고대사의 권위자였다는 서사가 구축되어야 했던 이유는, 천민권익운동 진영에서는 그를 신격화하고 싶어 했던 때문이지만, 반대로 힌두 국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암벧까르가 쌍쓰끄리땀을 국어 혹은 공용어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는 서사의 강화에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CAD에서 암벧까르는 항상 최전선에서 힌두 전통주의자들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암벧까르에게 현

59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암벧까르의 많은 논점들을 이해하는 데에 그가 당시에 접한 서구 인류학자들의 논의와 그가 겪은 미국의 공화주의적 가치체계에 대한 담론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60 암벧까르가 빠알리(Pāli)를 배웠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맥락이 다른 주제이다.

www.kci.go.kr

실정치 안에서 천민차별의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힌두 국수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세력으로 포장된 힌두 전통주의자들이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간디였다. CA 구성 이전부터 이미 천민의 문제를 단지 립서비스 수준에서 결론을 내리거나 정치적 상징조작의 일부로 다루면서 천민의 권리를 위해 전통적인 힌두 질서를 흔드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간디와의 대결은 이미 오래된 일이었고 잘 알려진 일이기도 했다.[61] 상층 카스트들의 종교적 상징을 체계적으로 동원해서 대중을 움직였던 간디와 대결하는 입장에 있던 암벧까르는 그래서 항상 간디와 간디를 지지하는 힌두 전통주의자들에게 불온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었다. 즉 반힌두 정치인이자 영국 식민지배자의 앞잡이라는 색안경을 낀 채로 그의 모든 입장이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시크나 무슬림 집단이 암벧까르의 입장을 지지하는 일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이 말은 암벧까르가 CA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이 맥락 안에서 본다면 암벧까르가 쌍쓰끄리땀을 공용어로 정하자고 동의한 것은 힌두 전통주의자들의 명분을 제거하고, 쌍쓰끄리땀화된 힌디를 주장하는 분파에게도 쌍쓰끄리땀 자체를 힌디와 구분해서 별도의 안건으로 만들어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정치적 한 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인도의 힌두 국수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인도고전어가 이데올로기 대립의 맥락 안에서 재등장하는 맥락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안에 담긴 몇 가지 핵심적인 주장들이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을 정치 제도의 구현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언어가 갖는 인도 내에서의 독특한 지위와 맥락에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해명했다. 결국 힌두 정통주의에 맞서기 위한 도구로 암벧까르가 마련한 허구적인 역사재구성은 이제 그가 지향하던 바와 정반대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

61 암벧까르가 1938년 발표한 글, *Is Gandhi a Mahatma?*, *BAWS* XVII.2: 66-70에서도 그리고 1945년 출간된 단행본 *What Congress and Gandhi Have Done to the Untouchables*(초판 1945) *BAWS* IX: 1-489에서도 암벧까르의 비판적 태도는 잘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큰 흐름 안에서 암벧까르는 간디의 대중성을 극복하지 못했고, 자신의 뜻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간디와의 타협에서 얻어진 뿌나합의(Poona Pact)의 내용을 1935년의 인도 통치법(Government of India Act)에 포함시킨 것은 천민 권익을 위해서는 인도의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www.kci.go.kr

구가 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그 자신에 대한 새로운 허구마저 구축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암벧까르의 모든 정치적 주장이 허구적이었다거나 그의 재소환이 허구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62] 다만 구체적인 언어정책 안에서 벌어진 작은 전투가 보다 큰 전선에서 대립하고 있는 진영들이 어떻게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투고일: 2020년 6월 14일 | 심사일: 2020년 9월 23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4일

참고문헌

Adeney, Katharine. 2005. "Hindu Nationalists and Federal Structures in an Era of Regionalism." In Katharine Adeney and Lawrence Sáez eds. *Coalition Politics and Hindu Nationalism*, 97-11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_____. 2007. *Federalism and Ethnic Conflict Regulation in India and Pakista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Adeney, Katharine and Harihar Bhattacharyya. 2018. "Current Challenges to Multinational Federalism in India." *Regional & Federal Studies* 28(4), 409-425.

Ambedkar, Mahesh. 2005. *The Architect of Modern India Dr Bhimrao Ambedkar*. New Delhi: Diamond Pocket Books.

Anand, S. 1999. "Sanskrit, English and Dalit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4(30), 2053-2056.

Austin, Granville. 1999. *Working a Democratic Constitution The Indian Experience*.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BAWS: *Dr. Babasaheb Ambedkar: Writings and Speeches*. 17 vols. New Delhi: Dr. Ambedkar Foundation. 1979-2003 [reprint, New Delhi: Dr. Ambedkar Foundation. 2014].

Bellwinkel-Schempp, Maren. 2003a. "Dr. Ambedkar-Studies at Heidelberg." *SAI*

62 앞서 각주 12와 26에서 언급한 선거구 미세 획정은 이제 인도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Report 2003. 3-4. Heidelberg: South Asia Institute, Heidelberg University. https://www.sai.uni-heidelberg.de/saireport/2003/pdf/sai_report2003.pdf(검색일: 2018. 9. 1).

_____. 2003b. "Ambedkar studies at Heidelberg." https://www.sai.uni-heidelberg.de/saireport/2003/pdf/1_ambedkar.pdf(검색일: 2018. 9. 1).

_____. 2003c. "Ambedkar studies at Heidelberg." http://www.columbia.edu/itc/mealac/pritchett/00ambedkar/timeline/graphics/germanvisit.pdf(검색일: 2018. 9. 1).

Bhagat, R.B. 2013. "Census Enumeration, Religious Identity and Communal Polarization in India." *Asian Ethnicity* 14(4), 434-448.

Brass, Paul. 2004. "Elite Interests, Popular Passions, and Social Power in the Language Politics of India." *Ethnic and Racial Studies* 27(3), 353-375.

Chhibber, Pradeep K., 2001. *Democracy without Associations: Transformation of the Party System and Social Cleavages in Indi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Cohn, Bernard; with an introduction by Ranajit Guha. 1987. *An Anthropologist Among the Historians and Other Essays*.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CAD: *Constituent Assembly Debates (Proceedings) (9th December, 1946 to 24th January, 1950)* 12 vols. http://164.100.47.194/loksabha/cadebatefiles/cadebates.html(검색일: 2018. 9. 24).

Deshpande, Madhav M. 2008. "Sanskrit in the South Asian Sociolinguistic Context." In Braj B. Kachru et al., eds. *Language in South Asia*, 177-18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tzgerald, Timothy. 1996. "From Structure to Substance: Ambedkar, Dumont and Orientalism."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n.s.)* 30(2), 273-288.

Ilaiah, Kancha. 2016. "Why Ambedkar Supported Sanskrit as National Language: A Response to Murli Manohar Joshi." *The NewsMinute* 2016, April 27. https://www.thenewsminute.com/article/why-ambedkar-supported-sanskrit-national-language-response-murli-manohar-joshi-42273(검색일: 2020. 11. 1).

Jaffrelot, Christophe. 2010. *Religion, Caste, and Politics in India*. Delhi: Primus Books.

_____. 2011. *Religion Caste and Politics in Ind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www.kci.go.kr

Press.

Johnson, Gordon. 1973. "Partition, Agitation and Congress: Bengal 1904 to 1908." *Modern Asian Studies* 7(3), 533-588.

Kaviraj, Sudipta. 1992/2010. "Writing, Speaking, Being: Language and the Historical Formation of Identities in India." In S. Kaviraj. *The Imaginary Institution of India Politics and Ideas,* 127-16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first published in Dagmar Hellmann-Rajanayagam and Dietmar Rothermund eds. 1992. *Nationalstaat und Sprachkonflikte in Süd- und Südostasien*. Stuttgart: Steiner, 25–68].

Keer, Dhananjay. 1954. *Dr. Ambedkar Life and Mission*. Bombay: Popular Prakashan 1954 [reprint, 1995].

King, Robert. 1997. *Nehru and the Language Politics of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1. "The Poisonous Potency of Script: Hindi and Urdu."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50, 43-59.

Mishra, Anil Dutta. 2010. "Chronology of Dr. Bhimrao Ramji Ambedkar." In S. N. Mishra ed. *Socio-Economic and Political Vision of Dr. B.R. Ambedkar*. 245-260. New Delhi: Concept Publishing Company.

Misra, Salil. 2013. "Chater 17. Creation of Separate Lingusitic Identities: Hindi-Urdu-Hindustani." In Sh. Mohan, S. Bagga-Gupta, I. S. Hasnain, eds. *Alternative Voices: (Re)Searching Language, Culture, Identity*, 240-259.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Möller, Ulrika and Isabell Schierenbeck. 2014. *Political Leadership, Nascent Statehood and Democracy: A comparative Study*. Abingdon/New York: Routledge.

Nehru, Jawaharlal. 1946. *The Discovery of India*.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reprint, 1989. Centenary Edition, 6th Impression 1994, first published 1946. Calcutta: The Signet Press].

Pandey, Anurag. 2007. "Communalism and Separatism in Inda."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42(6), 533-549.

Pereltsvaig, Asya and Martin W. Lewis. 2015. *The Indo-European Controversy Facts and Fallacies in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www.kci.go.kr

Press.

Rao, Anupama Rao. 2009. *The Caste Question: Dalits and the Politics of Modern Ind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hourie, Arun. 1997. *Worshipping False Gods: Ambedkar, and the Facts Which Have Been Erased*. New Delhi: ASA Publications.

Sitaramayya, Pattabhi B. 1935. *History of the Indian National Congress 1885–1935*. vol. 1. Madras: Working Committee of the Congress.

So, Alvin Y. and Yin-Wah Chu. 2018. "The Cultural Contradiction of State Neoliberalism in China." *Asia Review* 7(2), Issue 14, Supplement, 33-52.

Zelliot, Eleanor. 2008. "Dalit Literature, Language and Identity." In Braj B. Kachru *et al.*, eds. *Language in South Asia*, 450-46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ww.kci.go.kr

아시아리뷰 제10권 제2호(통권 20호), 2020

Abstract

Recent Recall of Sanskrit and Ambedkar: Language as a Framing Element of Politics in India and the Reconstruction of Ancient History

Sung Yong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ate organization corresponding to linguistic states in India reveals the problematic nation-building process of Indian modern history unlike the state-formation process. In addition to defin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state organization, the languages of the country play the crucial role in forming the 'imagined community' in India.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states, new debates have recently emerged on the language policy and the Hindu nationalist camp, which is trying to lay over an integrated national identity. In this context the linguistic and cultural medium of the Indo-Aryan traditions (i.e., Sanskrit) and Dr. Ambedkar, who was consistently devoted to the elimination of Dalit discrimination, are recalled in modern Indian political debates. In this suspicious narrative, some facts were distorted and the original contexts were presented in a contrary way. In this paper, some relevant facts will be clarified and the meaning of the intended mystification will be contextualized and explained in the context of political symbol manipulation for the nation-building procedure from the Hindu nationalist side.

Keywords | Linguistic States, Nation-Building in India, Ambedkar, Sanskrit

www.kci.go.kr